

2021 YWCA 신년예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38절

- ❖ 일 시 : 2021년 1월 7일(목) 오전 10시
- ❖ 장 소 : 한국YWCA연합회 회관(Youtube 중계)

예배순서

❖ 인도자 : 원영희 회장

예배의 부름 다 같이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13절

찬 송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391장) 다 같이

1.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2.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3.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4.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후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1-8절)

성경 봉독 마태복음 9장 16-17절 인도자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말 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김기석 목사
 (용산청파교회)

특 송 영 상 상록수 정신여고뮤지컬부
 (블랑 8기)

봉 헌 YWCA 100주년을 향한기금마련

찬 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찬송가 461장)** **다 같 이**

1.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2.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3.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앉을 때
주께 네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4.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후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YWCA 공동기도 **다 같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9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축 도 **김기석 목사**

신년 인사 나눔

❖ 진행 : 유성희 상임이사

신년 인사 원영희 회장

신년 시 김재화 명예연합위원

인사 나눔 다 같이

- 회원YWCA
(끝자리 9, 10주년)

- 감사패 증정

- 군산 로컬프렌들리

신년시

희망의 상징 태양

김재화

새해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도 지난해도 한결같이
바다에서 산에서 솟아올랐다

새로운 것은 우리의 마음
한 해 시작되면 새삼 다짐하는
정동진 해돋이로 달려가는 것이리라

방금 전 몇 백년 만에 토성 목성의 만남이
광활한 우주의 신비함 보여준 광경인데
우리는 좁기만 한 땅위의 삶 테두리에 서 있다

그래도 되뇌이는 가슴 속 다짐이면
반복의 언어로도 단순해지고
열두 달 상기하면 새롭게 변한 모습
누군가는 알아보리라